

빛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

-영리한 청지기 비유(눅 16:1-8)의 사회학적 해석-

박흥용*

1. 들어가는 말

이른바 영리한 청지기 비유(눅 16:1-8)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일을 칭찬하는 것이 그렇다.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일은 분명 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를 ‘영리하다’고 칭찬하는 ‘주인’(8절)이 그를 해고한 부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해고 사유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고된 미당에 훗날 먹고 살 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증서를 변조하고 있는데 그걸 칭찬하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자들이 “비유 주석의 문제야,” “어려운 비유 가운데 최고봉,” “비유 해석의 난제(*crux interpretum*),” “악명높은 수수께끼”라고 규정할 정도로 말이다.¹⁾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올리히²⁾ 이후

*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Dennis J. Ireland,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Luke 16:1-1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1 (1989), 293. “악명 높은 수수께끼”는 룬트(R. G. Lunt)의 표현이며, “어려운 비유 가운데 최고봉”은 스트롤(S. Stroll)의 표현이다. “비유 주석의 문제야”는 뢰커(A. Rücker)의 표현이며, “비유 해석의 난제”는 올리히(A. Jülicher)의 표현이다; 또한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6), 86;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245를 보라.
- 2)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Tübingen: Mohr, 1910).

수많은 학자가 시도했다.³⁾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한 일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 이는 종말론적 비유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⁵⁾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학적(혹은 사회과학적) 연구⁶⁾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런 해석의 일환이다. 최근 이 비유를 사회학적 혹은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을 통해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학적 해석은 한국 신약학계에서도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동양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 사회학적 모델들을 적용·분석하여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민규의 연구⁷⁾와 1세기 지중해 연안 세계의 사회·경제적 정황을 토대로 예수가 제시한 대안적 사회에 대해 고찰하는 송진순의 연구,⁸⁾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의 정치·경제적 측면, 즉 로마의 식민 지배로

3) Simon J. Kistemaker, 『예수님의 비유』, 김근수·최갑중 역 (서울: CLC, 2002), 293. 이 책 293-294쪽 각주 1번에 이 비유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연구 목록들을 열거한 책들이 제시된다; 또한 John Nolland, *Luke 9:21-18:34*, WBC 35b (Dallas: Word Books, 1993), 793-795를 보라. 여기에도 이 비유를 연구한 논문들과 책들이 열거되어 있다.

4) John S. Kloppenborg,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1-8a)," *Biblica* 70 (1989), 474. 물론 클로펜보그의 평가 이후에 30여 년 동안에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진행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클로펜보그의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경식,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 번역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1/1 (2007), 235-236 각주 3번을 보라.

5) 올리허를 비롯해 다드(Dodd)와 예레미아스(Jeremias)가 대표적이다.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Scribner's, 1961), 17; Joachim Jeremias, 『예수의 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4), 42-45; 또한 Dennis J. Ireland,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1-13)"를 보라.

6) Bernard Brandon Scott,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9장; John Goodrich, "Voluntary Debt Remission and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JBL* 131/3 (2012), 547-566; John S. Kloppenborg,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1-8a)," 474-95.

7) 이민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8b)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신약논단』 8:3-4 (2001), 39-62.

인해 발생한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인해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서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사회적 삶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박노훈의 연구⁹⁾ 등이 있다. 본 고 역시 큰 틀에서는 이런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더라도 이 연구는 지주들과 그들의 착취와 과중한 빚으로 인해 신음하는 무산자들 사이의 무한반복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무산자들의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수많은 희생들을 야기하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지주들과 무산자 계층을 착취 주체와 착취 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본 고는 이 비유의 난제 중 하나인 ‘주인의 정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시도한다.¹⁰⁾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1절에 나오는 부자인지, 아니면 이 비유 이야기의 화자인 예수인지¹¹⁾가 이

8) 송진순, “누가공동체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청지기 비유(눅 16:1-8a),” 『신약논단』 26:4 (2019), 909-942.

9) 박노훈, “신약성서 경제학 소고: 누가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1 (2011), 5-28.

10) 이 비유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비유의 범위가 7절까지인지 아니면 8절 상반절까지인지(Joseph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 V]*, AB [New York: Doubleday, 1985], 1096-1097; A.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n, 2000], 148; J. R. Donahue, *The Gospel in Para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62-163; David Landry and Ben May,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uke 16:1-8a],” *JBL* 119/2 [2000], 288),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풍자 혹은 반어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인지,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주인의 몫인지 아니면 청지기의 몫인지, 주인의 몫이라면 주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폭리에 의한 불의한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오덕호는 이런 비유의 해석상의 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1) 청지기가 감액해 준 빚이 주인이 취한 폭리인지 아니면 주인이 받을 정당한 이자인지, 그것도 아니면 청지기에게 돌아갈 몫인지, 2)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풍자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 3) 비유의 요점(주체)은 심미적인 것인지. 종말론적인 선포인지, 바른 삶을 위한 교훈인지(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176-209). 그러나 청지기를 칭찬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 비유의 의미가 판이해진다는 점에서 이 비유의 난제 중에 난제는 청지기의 정체에 있다고 할 수 있어 본 고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시도한다.

비유 해석을 어렵게 하는 난제 중 하나인데, 본 고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비유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8절의 ‘주인’이 1절에 나오는 ‘부자’인지 아니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인지를 밝혀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참고로, 본 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이 비유의 해석사 또는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하지 않고 아래 각주에 제시된 자료들로 대신한다.¹²⁾

2.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8절)은 누구인가?

8절에 나오는 ‘주인’ 즉 채무증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빚을 감액해주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ὁ κυριος)이다. 이 용어는 신약성서에서 일반적인 주인 즉 누군가의 소유자로서의 주인 혹은 어떤 종이 모시는 주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마 13:29; 마 18:34; 눅 12:37; 눅 19:17 등),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마 14:28; 막 1:3; 눅 10:1; 요 21:16 등). 이런 점에서 8절의 ‘주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해고당한 청지기의 주인이고, 또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1절에 나오는 부자인지 이 비유 이야기의 화자인 예수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둘 중 누구인지에 따라 이 비유가 상당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니

11) 민경식은 이미 8절의 ‘퀴리오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다루었다. 하지만 민경식의 논문은 8절이 주인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한다(민경식,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 번역에 대한 고찰”).

12)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23-40; Dennis J. Ireland,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Luke 16:1-13)”; 유태엽, “불의한 청지기 비유(눅 16:1-13)의 해석학적 고찰,” 『신학과세계』 83 (2015). 이 중 오덕호의 글은 해석사에 대해 소개하고, 나머지 두 논문은 다양한 해석들을 다룬다.

어쩌면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한다면, 청지기의 행동이 결코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의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비해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라고 한다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의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9절에 나오는 예수의 권고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내용으로 볼 때 말이다. 또한 이 주인의 정체에 대한 문제는 다른 해석상의 난제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예를 들어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1절에 나오는 부자라고 한다면,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의 몫일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지기에게 돌아갈 몫일 수도 있고 주인이 취한 폭리일 수도 있으며 주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 될 수도 있다. 부자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마음대로 감면해주는 청지기를 칭찬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사유도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 때문이었으니 말이다. 이처럼,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 비유는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주인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인가, 부자인가?

2.1.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주인은 예수이다.

먼저, 이 비유의 원래의 형태는 1-7절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8절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일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스(Jeremias)가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이 비유를 1-7절로 한정한다. 이 비유의 원래 형태는 7절까지이고, 8-13절은 후에 첨가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8절의

‘주인’(ὁ κυριος)이라는 용어가 예수를 언급하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용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아스는 8절의 주인이 1절에 나오는 부자가 아니라, 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해고한 청지기가 자신의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8절에 나오는 주인 즉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주인은 1-7절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¹³⁾

다음으로,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예수라고 할 수 있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한 사유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다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¹⁴⁾

또한 8절 하반절의 내용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는 내용을 볼 때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예수라고 할 수 있다. 8절 하반절의 내용은 접속사 ‘호티’(ὅτι)로 연결되는데, 이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내용이 상반절 내용의 이유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¹⁵⁾ 즉 8절 하반절인 ‘호티’(ὅτι) 이하의 내용은 상반절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인의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8절 하반절의 내용은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말로 적절하지 않고¹⁶⁾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가 한 말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8절 상반절의 주인 즉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8절 하반절 ‘호티’(ὅτι) 이하의 내용이 인용된 내용이라는 점¹⁷⁾에서도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라고 할 수 있다. ‘호티’(ὅτι) 이하의 내용은

13) Joachim Jeremias, 『예수의비유』, 42.

14) A. M. Hunter, *The Parables Then and Now* (London: SCM, 1971), 100-101.

15) D. O. Via,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1997), 156.

16) A. Jülicher, *Die Gleichnisreden Jesu*, 503.

17) 독일어 공동번역(EIN)은 이 부분을 직접 인용문으로 번역한다.

이 비유의 적용¹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5-7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8절의 주인은 부자가 아니라 예수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흐름상 주인은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의 행위를 몰라야 하는데, 주인이 그 일의 시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¹⁹⁾ 주인에게 해고 명령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인의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가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일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8절의 주인 즉 자신의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는 주인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아니라 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주장도 그렇듯 이런 주장들 역시 반박의 여지가 많다.

먼저, 1-7절까지의 내용이 원래 비유이고, 8절 이하의 내용은 후대에 첨가된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한 ‘주인’(ὁ κυριος)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언급하는 독특한 용법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3절과 5절에 나오는 동일한 용어 역시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용어는 분명 1절에 나오는 부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8절의 주인을 3절과 5절에 나오는 주인과 일관되게 적용하면 그는 예수가 아니라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된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주인’(ὁ κυριος)은 예수를 가리키는 독특한 용법이기도 하지만(눅 12:42; 눅 18:6) 예수가 아닌 일반적인 주인을 가리키는 경우(눅 12:37, 42, 눅 14:23 등)도 많고, 그래서 8절의 ‘주인’이 예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²⁰⁾

18)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17.

19)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261-264.

20)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103-104.

다음으로, 주인의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행위를 부자 주인이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8절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데, 만약 청지기의 행위가 비유 속의 부자가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 역시 그런 일을 칭찬할 리가 없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청지기를 칭찬한 이가 예수라는 주장 역시 부인될 수 있다. ‘옳지 않은 일’(8절) 때문에 주인이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왜 예수는 칭찬해야 하겠는가? 또 주인이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부자가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지기가 면제해 준 액수는 주인의 몫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고,²¹⁾ 그래서 그런 청지기 자신의 몫을 포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영리한 행위로 보고 칭찬했다는 것이다.

또한 8절 하반절 ‘호타’(ὅτι) 이하의 내용이 인용문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비유에 대한 예수의 적용이며, 그래서 8절의 주인이 부자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만약 이 주장처럼 그 내용이 인용문이라면, 속담이나 잠언처럼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회자되었던 문구였을 수 있고, 그래서 비유의 화자인 예수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입을 통해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게 인용문이었다면, 당시 일반적이었던 상용구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시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상정된 부자 역시 그 말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흐름상 5-7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행위를 부자가 몰라야 하는데, 8절의 주인이 마치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점에서 부자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적인 이야기(fiction)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유와 같은 이야기 특히 허구적인 이야기에 기반을 둔 이야기들은 내용의 개연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말이다. 2시간 남짓한 영화들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21) Joseph A. Fitzmyer, “The Story of the Dishonest Manager(Lk 16:1-13),” *Theological Studies* 25 (1964), 34-36.

아니듯 말이다. 성서에 나오는 비유는 분량 면에서 이런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는데 어떻게 모든 내용의 개연성을 채기며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겠는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청지기의 행위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비유 이야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5-7절의 청지기의 행위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8절의 주인 즉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이 아니라 비유의 화자인 예수라고 하는 주장들은, 한편으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박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인가?

2.2.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주인은 부자이다.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예수가 아닌 부자라고 하는 근거들도 역시 많다. 먼저, 이미 언급했다시피, 8절에 나오는 ‘주인’(ὁ κυριος)이라는 용어와 3절과 5절에 나오는 ‘주인’이라는 용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8절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가 아닌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1절)라고 할 수 있다.²²⁾

다음으로, 청지기가 채무자에게 감면해 준 액수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부자 주인이 충분히 칭찬할만하다는 점에서 8절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서는 고용된 재산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원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에 더해 자기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

22) Bernard Brandon Scott, “A Master’s Praise: Luke 16:1-8a,” *Biblica* 64 (1983), 175; Robert H. Stein, 『비유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179-180; 최갑종, 『예수님의 비유』 (서울: 이레서원, 2001), 244-245;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253.

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²³⁾ 당시 재산관리인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돌아갈 이자와 함께 부과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입을 대체했기 때문이었다.²⁴⁾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감면해준 액수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 돌아갈 몫이었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몫을 포기함으로써 미래의 안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다. 청지기가 한 일은 부자 주인 자신에게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은 일이었으니 말이다.

또한 이 비유가 7절에서 끝나고 8절부터는 비유의 내용에 대한 예수의 적용이라고 한다면 비유가 결론 없이 끝나버린다는 점 때문에, 8절이 비유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이 부자라고 할 수 있다.²⁵⁾ 또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문구로 예수의 교훈이 시작된다는 데서도 8절까지가 비유이고 9절부터 비유에 대한 예수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8절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준 청지기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부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청지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감사하거나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낼 것이다. 그들은 청지기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알았다 해도, 그 일은 주인의 허락 없이 청지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소문으로 인해 주인이 사람들로부터 너그럽고 자비로운 자로 칭찬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명예가 높아졌을 것이다.

23)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18.6.3

24) J. D. M. Derrett, “Fresh Light on St. Luke XV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NTS* 7 (1961), 199.

25)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104; Robert H. Stein, 『비유해석학』, 180; John S. Kloppenborg,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1-8a),” 477; A.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148.

이런 소문은 즉각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가 행한 그 일이 비록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악한 일이었을지라도 그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⁶⁾ 당시 사회는 명예가 한 사람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였다는 점에서 말이다.²⁷⁾ 바로 이런 점에서,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1절에 나오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8절에 나오는 주인 즉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주장들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반박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일관성에 따라 3절과 5절에 나오는 주인이 부자라는 점에서 8절의 주인도 부자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신약성서에는 이런 일관성의 원칙을 깨트리는 본문들이 종종 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이 대표적이다. 이 구절에는 ‘호 퀴리오스’(ὁ κυριος)가 예수님과 일반적인 주인 둘 모두로 나온다: “주(ὁ κυριος)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ὁ κυριος)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한 구절 안에 ‘호 퀴리오스’(ὁ κυριος)가 두 번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둘 모두 일관되게 예수님이나 일반적인 주인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는 예수를 다른 하나는 종들의 주인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약성서에는 하나의 문학 단위 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26)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86-110; 또한 Bruce J. Malina and Richard L. Rohrbaugh, *Social Science on Synoptic Gospe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375를 참고하라; David Landry and Ben May,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uke 16:1-8a),” 287-309. 특히 288를 보라. 여기에서 랜드리와 메이는 명예와 회복 차원에서 주인의 칭찬을 설명한다. 주인은 청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져 그를 해고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채무자들의 빚을 감면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칭찬했다는 것이다.

27) 윤철원, 『신약성서의 그레코-로마적 읽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0), 79. 1세기 지중해 연안 세계가 ‘명예’라는 핵심 가치로 작동되는 세계였다고 하는 보다 자세한 논의는, Bruce J. Malina, 『신약의 세계-문화인류학적 통찰』, 심상범 역 (서울: 솔로몬, 1999)를 보라.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8절의 주인을 예수가 아닌 부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지기가 한 행위는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포기함으로써 미래의 안전을 준비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주인에게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인이 칭찬할만한 일이라는 점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 역시 여러 가지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첫째, 청지기가 한 그 일이 ‘정말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점 때문이다. 채무증서에 기록된 액수의 50%를 감면해 주었다는 것은 청지기에게 돌아가 몫이 원금의 거의 10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불의한 행위의 결과였고²⁸⁾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재산을 포기한다는 점이나 그런 행위로 인해 주인에게는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칭찬받는 것이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것이다. 또 누군가의 재산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모를까, 해고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를 누가 돌보겠는가? 빚을 감면받은 채무자들은 어차피 그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로 인해 그런 빚을 졌던 사람들이라 특별히 고마워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차라리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해고되기 전에 자기 것으로 책정된 몫을 거두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지 않겠는가? 채무자들을 불러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액수를 감면해주는 것은 청지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 행위는 영리한 일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부자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둘째,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정말로 주인의 몫이 아닌 청지기의 몫이었나?’는 점에서도 그렇다. 5절에 보면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리고 그런 질문에 채무자들이 기름 백

28) 구약의 율법에서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신 24:19), 로마법은 12% 이상의 이자를 금지하고(M. I. Finley, *The Ancient Econom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54) 있었기 때문이다.

말과 밀 백석을 빗졌다고 말한다.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는 채무자들이 주인에게 갚아야 할 액수의 일부였던 것이다.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몫의 일부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런 점에서 청지기가 한 일은 결코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칭찬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그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에게 돌아갈 몫을 주인이 확인할 수도 있는 채무증서에 함께 기록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³⁰⁾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청지기가 감면해준 행위가 주인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과 이것을 근거로 8절에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부자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비유를 7절까지라고 할 때 비유의 결론이 없다는 점에서 8절까지가 비유이고, 이런 점에서 8절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부자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누가복음 다른 곳에도 결론 없이 끝나는 비유가 나온다는 점에서 말이다.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0)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눅 13:6-9)가 그것이다. 먼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부자를 책망한 이후에 그가 창고에 쌓아 놓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 역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끝나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실제로 찍어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비유에 대한 예수의 교훈이나 적용도 없이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이런 점에서 비유의 내용을 7절이 아닌 8절까지로 보고 그래서 8절의 주인을 부자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29) John S. Kloppenborg,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1-8a)," 481.

30) 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89.

마지막으로, 채무증서를 변조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감면해주는 청지기의 행위가 불의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칭찬했고, 그래서 8절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부자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청지기가 한 그 일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인가?’라는 것이 그것이다. 4절에 따르면, 청지기가 그 일을 한 것은 정식으로 해고된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염두에 둔 탓이라고 한다. 그 일을 담보로 사람들로부터 자기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일로 인해 주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과 자신이 빚을 감면해준 그 사람들로부터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만약에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청지기의 몫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인에게 감사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청지기가 그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 사회는 명예가 모든 사회적 삶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런 점에서,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래서 8절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부자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2.3. 결론

이상에서 볼 때, 8절의 주인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인지, 아니면 비유의 화자인 예수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8절의 주인이 부자인지 예수인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 중 하나의 주장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반대 입장에 있는 근거들로 인해 반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두 입장 모두의 경우에서 해석을 시도하여 의미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입장 중에서 후자 즉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예수라는 입장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누가복음의 문맥 때문이다. 이 비유 이야기는 가까운 문맥은 물론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과 ‘물질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예를 들어 이 비유 뒤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눅 19:2-10)에서, 예수가 불의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삭개오의 행위를 옳게 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처럼 이 비유 이야기 역시, 예수가 불의한 재물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비유를 부자가 아닌 예수가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야기로 보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와 이 비유를 함께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창고에 곡식을 쌓아 놓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부자에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이야기 즉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 비유 이야기 역시 예수가 불의한

31) 영리한 청지기 비유는 가깝게는 15장과 17장의 일부 내용들(예를 들어, 눅 15:1-32; 눅 16:19-31; 눅 17:5-10)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멀게는 1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들(예를 들어, 눅 1:46-55; 눅 12:13-21; 눅 14:12-24; 눅 18:18-30; 눅 19:1-10; 눅 21:1-4)과 물질 사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삭개오 이야기와는 ‘예상’과 ‘회상’이라는 문학 기법을 통해 주제가 반복·강조된다. 더 자세한 논의는 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를 보라. 이 책에서 오덕호는 독자가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예상’과 ‘회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상이란 독자가 앞으로 무엇이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인데, 독자는 독서과정의 한 시점에서 그 전까지 읽었던 것을 가지고 이런 예상을 하게 된다.” “회상이란 나중에 본문을 읽을 때, 앞에 나온 문단들을 상기하며 앞에서 했던 예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48, 각주 127번과 128번과 각주에 소개된 참고문헌들을 보라).

재물일지라도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야기 즉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비유를 부자가 아닌 예수가 청지기를 칭찬한 이야기로 보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그가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기에 예수는 그를 영리하다고 칭찬했는가?

3. 해석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는 일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³²⁾ 특별히 고대 원시 농경 사회의 구조를 가진 일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³³⁾ 이것은 영리한 청지기 비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내용과 관련된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주민의 대다수인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이중 삼중의 세금 정책과 그로인한 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민들의 일상적 삶이 붕괴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비유 속의 청지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 볼 때, 특별히 땅 주인들의 무자비한 착취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삶의 상황과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볼 때, 일견 불의해 보이는 청지기의 행위를 예수가 칭찬한 이유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32) 물론 비유가 *ipssima vox* 즉 예수의 입에서 나온 원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약 비유가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사가 반영되어 개작된 것이라면, 일세기 팔레스타인은 물론 일세기 지중해 연안 세계의 사회적 상황 역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3) 이민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1-8b)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42.

3.1. 비유 이야기의 사회-경제적 배경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³⁴⁾, 주민 대부분도 농업에 종사했다.³⁵⁾ 갈릴리 토지의 97%에 해당하는 면적이 농업에 이용되었고 주민의 2/3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말이다.³⁶⁾ 또한 농업에 기반한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다. 그러나 땅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지배층이 소유했고,³⁷⁾ 그로 인해 주민 대다수는 소수의 지배층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부의 축적은 소수의 지배층에게만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소수의 부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고,³⁸⁾ 대다수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사람의 수는 갈수록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날로 가중되는 ‘부채’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농업에 종사한 주민들의 지급 수준은 매우 낮았고, 잉여물 역시 거의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빛’은 필연적이었고, 이런 ‘빛’은 고율의 이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영농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자기 소유지가 없는 품삯 노동자나 소작농의 수를 증가시켜 나갔던 것이다.³⁹⁾ 이런 부채 상황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일반

34)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김판임 역 (서울: 동연, 2008), 31-32, 178.

35) 당시 인구의 90% 정도가 농촌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추산된다(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84; Richard A. Horsley,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정연복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4], 138).

36) Willabald Bösen,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황현숙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290. 참고로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농업 상황에 대해 “온 땅(은 지역)이 주민들에 의해 경작되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한다(요세푸스, 『유대전쟁사』, 3.3.2; 3.3.3)

37)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90.

38) 예를 들어, 당시 예루살렘의 한 부자였던 니코데모 벤 구리온은 딸이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금화 1백만 데나리온을 주었고, 그 딸의 침대 값만 1만 2,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한다(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39).

39) Richard A. Horsley, 『예수운동:사회학적 접근』, 이준모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135-138.

백성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세금 때문이기도 했다.⁴⁰⁾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다양했다. 조공(공세)과 직접세(토지세, 인두세), 간접세(왕관세, 소금세, 판매세 등), 관세(수출입관세, 항구관세, 통행세 등), 각종 수수료 등이 있었고, 이 밖에도 전쟁부담금 및 지역 통치자들이 군대와 공공사업을 위해 수시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었다.⁴¹⁾ 당시 일반 유대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 로마에 바치는 조세와 공납금만 20% 정도였다.⁴²⁾ 여기에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세(제1십일조, 제2십일조, 성전세, 첫 열매 제물 등)를 바쳐야 했고,⁴³⁾ 심지어 소작농들은 토지임대료 등을 납부해야 했다.⁴⁴⁾ 게다가 일세기 지중해 연안 세계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심했고, 팔레스타인도 예외가 아니었다.⁴⁵⁾ 이런 상황 속에서 빚은 갈수록 늘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소규모 자영농들은 소작농

40) 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 (New York: McGraw, 1966), 267-269; Richard A. Horsley, 『예수운동: 사회학적 접근』, 111-118.

41)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92; 황성규, 『예수운동과 갈릴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93.

42)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57. 요세푸스에 따르면, 농민들은 수확물의 25%를 공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요세푸스, 『유대교대사』, 14.5.4). 물론 이것은 수치를 부풀리는 요세푸스의 과장된 표현일 수 있어 이 수치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조세와 공납금에 불과하고, 각종 종교세와 지방 통치자가 요구하는 각종 세금들, 게다가 소작농이 부담해야 하는 소작세를 포함하면 세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43)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202, 208.

44) 일반적으로 소작농은 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소작료로 지불하거나 혹은 수확량의 1/3 가량을 납부해야 했다. 렌스키는 고대 농업사회에서 농민들은 수확량의 2/3를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으로 납부해야만 했다고 하고(Gerhard Lenski, *Power and Privilege*, 267), 오크만은 적게는 생산량의 절반, 많게는 생산량의 2/3를 빼앗겼다고 한다(Douglas E. Oakman, *Jesus and the Economic Questions of His Day*, Studies in the Bible and Early Christianity 8 [Lewiston NY: Mellen, 1986], 72).

45) 참고로, 200데나리온은 일일 품삯 노동자가 축제일을 제외하고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었다(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58). 하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를 볼 때, 일일 품삯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날은 매우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로, 소작농은 다시 품삯 노동자들과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일세기에 팔레스타인 주민 대부분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살아야만 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한 가정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8-10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해야만 했는데, 당시 이런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⁴⁶⁾ 그나마 이런 빈약한 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량도 각종 세금과 공납금을 제외하고 나면 생계에 사용되는 양은 수확량의 1/3 정도에 해당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갈릴리 소농의 수입은 150테나리온 정도였고,⁴⁷⁾ 이것은 가족들에게 일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었다.⁴⁸⁾ 즉 수입의 전부를 먹는 데에만 사용해도 부족하고 옷이나 가구,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구입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간 것이다.⁴⁹⁾ 게다가 이런 수입은 농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인데, 일세기 팔레스타인은 매년 심각한 기근과 전쟁, 폭동 등에 시달리곤 했다.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소농들은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했고, 이런 적자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조상으로부터

46) 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224.

47) Willabald Bösen,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307

48) 당시 팔레스타인 최저생계비가 200테나리온이나 그보다 적은데(Willabald Bösen,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307), 200테나리온은 6-7명의 가족이 한 명당 1,200-1,4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빵 400개 정도를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고대 지중해 세계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145). 즉 200테나리온은 당시 6-7명의 가족이 다른 무엇도 소비하지 않고 오직 음식만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고, 그래서 당시 소농의 평균 수입인 150테나리온은 생존을 위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세기 팔레스타인의 한 가정의 가족 수에 관해서 고대 지중해 사회의 가정이 핵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대가족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슈테게만과 뵘젠을 따라 6-7(9)명을 전제하여 진술한다.

49) Willabald Bösen,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307. 참고로 당시 옷옷 한 벌의 가격은 12-20 테나리온이었다(Ekkehard W. Stegemann and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46).

터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빚을 내야만 했고, 빚을 갚지 못해 결국에는 저당 잡힌 땅을 잃게 되었다.⁵⁰⁾

이것이 일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다. 극소수의 지배층에게 집중된 토지 소유,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 과도한 세금과 부채, 그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상실, 유일한 생산 수단인 토지의 상실로 인한 소작농과 낱품팔이로 전락으로,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은 날로 증가하고 부자들의 부의 축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영리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영리한 청지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청지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칭찬을 했는가?

3.2. 칭찬의 이유

청지기의 행위는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은’(8절) 행위가 분명하다. 그가 채무증서를 변조하여 감면해 준 빚은 주인의 몫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점에서 그렇다. 먼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절에서 청지기 자신이 채무자들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라고 말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만약 그것이 청지기의 몫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을 기록한 채무증서에 기록해 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⁵¹⁾

50) Richard A. Horsley,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138.

51) 당시 부자의 재산관리인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장부에 그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윤을 남겨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일이 흔했다(K. E. Bailey,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90). 예를 들어, 주인의 소유인 어떤 것을 100원에 팔았다면, 10원에 팔았다고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20원은 주인 몰래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는 온전히 주인에게 돌아갈 몫만 기재하고, 재산관리인 자신에게 돌아갈

나아가, 청지기가 감면해 준 빛의 규모가 청지기의 수수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밀 백 석(*κοπος*)은 150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고,⁵²⁾ 기름 백 말(*βατους*)은 약 3,400리터에 해당한다⁵³⁾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기름 백 말 중 오십 말을 감면해주는데, 만약 이것이 청지기의 몫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과 같은 양이 된다. 그렇다면 주인이 과연 이런 수수료를 허락했겠는가? 그럴 수 없다.⁵⁴⁾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는 당연히 주인의 몫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청지기의 행위는 옳지 않고 심지어 불의한 것이다. 해고된 이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타인 그것도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은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칭찬받을만한 일이 아니다. 칭찬은

몫은 따로 챙기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청지기가 변조한 채무 증서에는 온전히 주인의 몫만 기재되었고 그래서 그가 감면해준 액수 역시 주인의 몫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2) Gildas Hamel, *Poverty and Charity in Roman Palestine, First Three Centuries 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136. 1'석'(*κοπος*)은 약 11부셀(bushel)에 해당하고, 1부셀은 약 27kg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곡물을 약 200kg이라고 할 때, $11 \times 27 \times 100 / 200 =$ 약 150이 된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의 7년 반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하다(J. Breech, *The Silence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1983], 108.)

53) 1'말'(*βατος*)은 히브리 단위 1바트(bath)로 볼 수 있는데, 요세푸스는 1바트가 약 72세스티리티우스(sextaries) 즉 34리터 정도 된다고 한다(요세푸스, 『유대고대사』, 8.2.9). 이렇게 볼 때 본문의 기름 백 말은 약 3,400리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1리터의 기름이 담긴 병 3,400개가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기름 백 말은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오크만은 1바토스가 약 400리터에 해당한다고 한다(Douglas E. Oakman, *Jesus, Debt, and the Lord's Prayer*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4], 37). 이렇게 볼 때 기름 백 말은 기름 40,000리터라고 할 수 있다.

54) Bruce J. Malina and Richard L. Rohrbaugh, *Social Science on Synoptic Gospels*, 373-374.

커녕 오히려 비난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다. 그가 한 일이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 일이 왜 지혜로운 일이라고 칭찬했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율법에서 금한 고금리의 이자를 탕감해 준 일이기 때문이다.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은 빛의 원금은 아니었다. 빛의 원금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면 그는 자신의 미래 안전은커녕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감면액은 원금이 아닌 이자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이자율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기름은 원금의 20%를 넘고, 밀은 원금의 100%가 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자율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율법에서는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하고, 또한 당시 법정 이자도 12%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청지기가 그런 이자를 감면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 일로 주인이 청지기를 법정에 고소할 수 있었는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가 법의 규정을 어기는 불법인데 말이다. 그럴 수 없다. 해고는 할 수 있어도, 법정에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다. 청지기는 이점을 이용했다. 고금리 대출이라는 불법적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영리한 일을 했고, 그래서 예수가 그를 영리하다고 칭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율법을 어기는 주인의 행위를 뒤집어엎는 일이기도 하다. 율법을 준수하는 일인 것이다. 즉 고리대금과 이자를 취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는 율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프로즈불(*prozbul*)⁵⁵⁾이라는 규정으로 유명무실

55) 프로즈불 규정은 랍비 힐렐(Hillel)이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면제년에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증서를 작성할 때, 면제년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는 조항(*prozbul*)을 기록한 후 면제년에 그 채무증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면제년에는 빚 담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면제하라고 하는 율법 조항을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빚 면제에 대한 부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결과적으로 채무자들보다는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활용되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면제년 규정을 피하며 빚을 통한 소유의 확장을 꾀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날로 증대되는 빚의 부담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프로즈불 규정에 관한 간단한 소개는 Ekkehard W. Stegemann and

해진 면제년의 규정을 간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를 칭찬했다. 주인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리하고 칭찬받을 일인가!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지기의 행위는

Wolfgang Stegemann,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191을 참고하라. 한편, 키펜베르크는 프로즈불 조항이 채무증서에 기록되었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Wadi Murabba'at, Mur 18 (54-55년)에서 복원한 빛 계약이 프로즈불(*prozbul*) 같은 공식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여, 채무증서에 프로즈불 조항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프로즈불(*prozbul*)에 대한 후기 랍비들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이해라고 한다(Hans von Kippenberg, *Religion und Klassenbildung im Antiken Judäa. Studien zur Umwelt des Neuen Testaments*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139).

- 56) 예수가 그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구절에서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이 비유를 포함한 이야기가 끝난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는 설명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8절 하반절의 내용의 논리상으로도 그렇다. 이 부분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한다. 그렇다고 할 때 ‘빛의 아들들’은 ‘오는 세대의 아들들’을 의미한다. 또한 오는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라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이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은 쿠파문서의 이원론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이 세대의 자녀들’과 ‘오는 세대의 자녀들’은 ‘불의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의 대조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은 의로운 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당시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의로운 자의 대표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다. 물론 바리새인만 의로운 자들로 여겨지지 않지만, 최소한 그들이 의로운 자의 대표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빛을 탐강해주고 있는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면제년에도 채무 면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즈불(*prozbul*)’ 제도를 통해, 면제년에 빛을 탐강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빛의 아들들’을 쿠파문서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내용은 John Nolland, *Luke 9:21-18:34*, WBC 35b, 801; I. Howard Marshall,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9), 621을 보라. 참고로, 오덕호는 이 구절이 쿠파문의 이원론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고 한다(오덕호, 『하나님이나 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215).

당시 빛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무산자들(유일한 생산 수단인 땅을 잃고 소작농과 품꾼 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빛의 억압에서 해방해 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가 칭찬했다. 땅 주인들의 무자비한 착취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무산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억압적인 삶의 상황을 완화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것이 모든 백성이 상호부조의 삶에 근거하여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율법(신 23:19-20)을 실천하는 일이고,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지기의 행위는 착취의 주체인 주인(지주)과 착취의 대상인 채무자들(땅을 잃은 농민들과 품꾼 노동자들)의 갈등 상황을 해소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세기 팔레스타인 농경사회에서 빈번했던⁵⁷⁾ 반란의 구호는 ‘빛의 탕감’이었고, 이런 반란은 지주와 그 지주들로부터 착취를 당하여 고통받는 무산자들의 무한반복적인 폭력 상황을 연출했는데⁵⁸⁾,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지주들과 무산자 계층을 착취 주체와 착취 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칭찬은 청지기의 행위 자체에 대한 칭찬이기도 했지만, 착취 주체와 착취 대상 모두에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촉구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당시 사회 상황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다.

4. 나가는 말

극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된 부와 그에 따른 무산자들의 빈곤의 극대화,

57) John D. Crossan, 『역사적 예수』,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제2부, 특히 10장을 보라. 또한 줄지인 박홍용, 『복음서와 예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의 예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212-215를 보라.

58) Richard A.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Popular Jewish Resistance in Roman Palestin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이중 삼중의 세금과 그로 인한 과중한 채무 상황. 이것이 영리한 청지기 비유의 사회적 배경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유는 가현(假現)과 다를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시대와 동떨어져 시대와 상관없는 추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체 없는 의미를 던져주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of 비유는 결코 이렇게 가현적이지 않다. 현실과 결부되고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듣는 이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이다. 즉 이 비유는 주민의 대부분이 빛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일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무산자들의 해방에 관한 비유이다. 율법이 노래하고 예수가 선포하며 실천한 세상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상호협력과 부조를 통해 이루어야 할 평등한 공동체에 관한 비유이다.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빛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채무자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지주와 무산자가 착취의 주체와 착취의 대상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토대를 딛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라고 권장하는 비유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을 노래하는 자신의 복음서에 이 비유를 기록했다.

‘영리한 청지기 비유’는 난제투성이이다.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청지기의 해고 사유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1절)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낭비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주인의 해고 행위가 정당한지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청지기가 감면해 준 액수가 주인의 몫인지 청지기의 몫인지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름 백 말과 밀 백 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채무액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으며,⁵⁹⁾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인지

59) 어떤 이는 이것이 세금 체납이라고 하고(Michael Rostovt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vol.1 [Oxford: Clarendon, 1957], 208-209), 어떤 이는 소작농이 체납한 토지 임대료라고 한다(Shimon Applebaum, “Economic Life in Palestine,” *The Jewish People in the First Century: Historical Geography, Political History,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Life and Institutions*, ed. S. Safrai and M. Stern [Philadelphia: Fortress, 1976], 659).

비유의 화자인 예수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비유는 어렵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비유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역으로, 이 비유의 해석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든 해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비유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 대한 본 고의 해석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의미의 확정을 위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가능한 하나의 해석이다. 다른 여러 해석들을 넘어서는 해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 중 하나의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와 결부된 해석이다. 그럴듯한 해석이다. 고민해볼 만한 해석이다.

<주제어>

눅 16:1-8, 주인, 청지기, 빚, 농경사회, 평등사회

<Key Words>

Luke 16:1-8, Kyrios, Steward, Debt, Agrarian Society, Equal Society

* 접수일 2021년 8월 12일,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참고문헌

-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 서울: 컨콜디아사, 1988.
- 김창락, 『귀로 보는 비유의 세계』,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민정식,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퀴리오스 번역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1:1, (2007), 235-267.
- 박노훈, “신약성서 경제학 소고: 누가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77:1 (2011), 5-28.
- 박홍용, 『복음서와 예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의 예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 송진순, “누가공동체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청지기 비유(눅 16:1-8a),” 『신약논단』 26:4 (2019), 909-942.
- 오덕호, 『하나님이냐 돈이냐: 누가복음 16장의 문학·역사비평적 연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유태엽, “불의한 청지기 비유(눅 16:1-13)의 해석학적 고찰,” 『신학과세계』 83 (2015), 6-34,
- 윤철원, 『신약성서의 그레코-로마적 읽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이만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눅 16:1-8b)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신약논단』 8:3-4 (2001), 39-62.
-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서울: 이레서원, 2001.
- 황성규, 『예수운동과 갈릴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Applebaum, Shimon, “Economic Life in Palestine,” *The Jewish People in the First Century: Historical Geography, Political History,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Life and Institutions*, ed., S. Safrai and M. Stern, Philadelphia: Fortress, 1976.
- Bailey, K. E., *Poet and Peasant: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ösen, Willabald,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황현숙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 Breech, J., *The Silence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1983.

- Crossan, John D., 『역사적 예수』,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 Derrett, J. D. M., “Fresh Light on St. Luke X V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NTS* 7 (1961), 364-380.
- Dodd, C. H., *The Parables of the Kingdom*, New York: Scribner’s, 1961.
- Donahue, J. R., *The Gospel in Para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Finley, M. I., *The Ancient Econom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Fitzmyer, Joseph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IX VI)*, AB, New York: Doubleday, 1985.
- , “The Story of the Dishonest Manager(Lk 16:1-13),” *Theological Studies* 25 (1964), 23-42.
- Goodrich, John, “Voluntary Debt Remission and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JBL* 131/3 (2012), 547-566.
- Hamel, Gildas, *Poverty and Charity in Roman Palestine, First Three Centuries 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Horsley, Richard A.,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정연복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4.
- , 『예수운동:사회학적 접근』, 이준모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Popular Jewish Resistance in Roman Palestin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 Hultgren, A.,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n, 2000.
- Hunter, A. M., *The Parables Then and Now*, London: SCM, 1971.
- Ireland, Dennis J.,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Luke 16:1-1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1 (1989), 293-318.
- Jeremias, Joachim, 『예수의비유』,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4.
- Jülicher, A., *Die Gleichnisreden Jesu*, Tübingen: Mohr, 1910.
- Kippenberg, Hans von, *Religion und Klassenbildung im Antiken Judäa. Studien zur Umwelt des Neuen Testaments* 14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78)
- Kistemaker, Simon J., 『예수님의 비유』, 김근수·최갑종 역, 서울: CLC, 2002.
- Kloppenborg, John S.,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1-8a),” *Biblica* 70:4 (1989), 474-495.
- Landry, David and May, Ben,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Luke 16:1-8a),” *JBL* 119/2 (2000), 287-309.
- Lenski, Gerhard, *Power and Privilege*, New York: McGraw, 1966.
- Malina, Bruce J., 『신약의 세계-문화인류학적 통찰』, 심상범 역, 서울: 솔로몬, 1999.
- _____ and Rohrbaugh, Richard L., *Social Science on Synoptic Gospe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Marshall, I. Howard,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9.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 Nolland, John, *Luke 9:21-18:34*, WBC 35b, Dallas: Word Books, 1993.
- Oakman, Douglas E., *Jesus, Debt, and the Lord's Prayer*,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4.
- _____, *Jesus and the Economic Questions of His Day*, Studies in the Bible and Early Christianity 8, Lewiston NY: Mellen, 1986.
- Rostovtzeff, Michael,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vol.1, Oxford: Clarendon, 1957,
- Scott, Bernard Brandon, 『예수의 비유 새로 듣기』, 김기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소, 2006.
- _____, “A Master's Praise: Luke 16:1-8a,” *Biblica* 64 (1983), 173-188.
- Stegemann, Ekkehard W. and Stegemann, Wolfgang,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 손성현·김관임 역, 서울: 동연, 2008.
- Stein, Robert H., 『비유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8.

Via, D. O., *The Parables: Their Literary and Existential Dimension*,
Philadelphia: Fortress, 1997.

<초록>

빛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야기

-영리한 청지기 비유(눅 16:1-8)의 사회학적 해석-

박흥용

(호남신학대학교)

예수의 비유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중에 ‘영리한 청지기 비유’는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비유 주석의 문제야,” “어려운 비유 가운데 최고봉,” “비유 해석의 난제”라고 평가하며, 율리허(A. Jülicher) 이후 지금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난제가 많은 비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의 행위가 왜 영리한 행위로 칭찬받을 일인지, 또 그런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는 난제 중 난제이다. 본고는 이 두 난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리한 청지기 비유를 살핀다.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인지 아니면 비유의 화자인 예수인지에 따라 이 비유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채무증서를 변조하는 청지기의 행위가 영리한 행위로 칭찬받을 이유가 무엇이나에 따라서도 이 비유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고는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을 예수로 규정하고, 예수 사역의 관점 즉 예수 사역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그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예수가 활동한 일세기 팔레스타인은 소수의 지주와 주민 대다수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민 대다수가 빛의 억압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농경사회였으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청지기의 행위는 빛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을 해방하는 행위였고, 그로 인해 예수에게 칭찬받았

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의 행위는 빛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되돌리고 나아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Abstract>

The Story of Liberation from Debt Oppression: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Wise
Steward(Lk. 16:1-8)

Heung-Yong Park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There are many parables of Jesus that are difficult to interpret. 'The parable of the wise steward' would be the best of them all. It is regarded as the "problem child of parable exegesis," the "prince among the difficult parables," the "*crux interpretum* among the parables," and the "notorious puzzle." This is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icult problems that there has been no consensus among researchers since Jülicher. In particular, the most difficult problem is why the steward's fraudulent action which modifies debt documents is to be praised for a wise act. And so is the problem of who the steward is. This paper focuses on these two problems and examines the parable of the wise steward.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is parable can be interpreted the other way or conversely, depending on whether the owner who praised the act of the steward is the rich in the parables or Jesus, the speaker of the parable. It is also because the parable can be interpreted in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why the act of modifying the debt documents was praised as a wise act.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paper defines the owner who praised the steward as Jesus, and explains the reason why he praised the steward in the perspective of Jesus' ministry,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Jesus' time. In the first century, the Palestinians where Jesus was active were an agrarian society in which a small number of landowners and

the majority of residents were related to creditors and debtors, and in this relationship the majority of residents suffered under the oppression of debt. In this social situation, the act of the steward was an act of liberating the moaning residents under the oppression of debt, so he was praised by Jesus. This paper reveals this fact.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act of the steward was to restore the mosaic law distorted by Pharisees who claim to be children of light and to embody the equal society of the kingdom of God that Jesus preached.